

공

고

●문화재청공고 제2022-7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6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2. 28.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추가 지정예고 : 총 1건

문화재명	추가 지정 대상	수량	소유자 (관리자)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榮州 黑石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4 (紺紙銀泥妙法 蓮華經 卷四)	1첩	대한불교조계종 흑석사 (국립대구박물관)
	백지금니 묘법연화경 권5-변상도 (白紙金泥妙法 蓮華經卷五-變相圖)	1매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 총 5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 (靑磁 獅子形蓋 香爐)	2건 4점	국 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	서울 조계사 목조여래좌상 (서울 曹溪寺 木造如來坐像)	1구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3	청구영언 (靑丘永言)	1책	국 유 (국립한글박물관)
4	달마대사관심론 (達磨大師觀心論)	1책	백천사
5	춘추경좌씨전구해 권1~9, 20~29, 40~70 (春秋經左氏傳句解 卷一~九, 二十~二十九, 四十~七十)	50권 5책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다.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국보 지정예고】

□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榮州 黑石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추가 지정

- 지정현황 : 비지정
- 추가 지정대상

연번	명칭	소유자 (관리자)	소재지	수량	규격	재질 (판종)	형식	조성 연대
1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4 (紺紙銀泥妙法蓮華經 卷四)	대한불교조계종 흑석사 (국립대구 박물관)	대구광역시 수성 구 청호로 321, 국립대구박물관	1첩	361×120cm (난고 239cm)	楮紙 (필사본)	절첩장	조선 초기
2	백지금니묘법연화경 권5-변상도 (白紙金泥妙法蓮華經卷五-變相圖)	대한불교조계종 흑석사 (국립대구 박물관)	대구광역시 수성 구 청호로 321, 국립대구박물관	1매	31.0×44.0cm	楮紙 (필사본)	날장	조선 초기

※국보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1993.11.5.지정)에 추가 지정

○ 사 유

추가지정 예고 대상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4’ 1첩은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유물 중 하나로, 1993년 11월 국보로 지정된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2·3·5와 표지·표지제목·변상도·본문 등의 외형적 구성형태와 체계 및 서체, 종이 재질 등이 전체적으로 일치한다. 조선 15세기 흑석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사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추가로 지정해 복장유물의 완전성을 높이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백지금니 묘법연화경 권5-변상도’ 역시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유물 중 하나로, 고려시대부터 형성된 변상도 구성과 유사해 전통적인 도상 규범과 도설 내용을 잘 따른 작품이다. 변상도의 크기와 표현 양상은 기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권2의 변상도와 거의 같은 양식과 구성형식, 형태서지학적 특징을 보여준다.

두 점의 『백지금니 묘법연화경』 변상도는 한질로 제작되어 그 중 일부 권만 복장으로 납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상도 부분만 분리한 것으로 생각되며, 변상도의 제작 시기는 대략 불상이 제작된 1458년 무렵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보 지정 후 추가로 수습된 권5의 변상도는 기 지정된 권2-변상도의 미술사적 내용을 한층 보강해 주는 자료로서,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기 유물목록에 포함시켜 추가로 지정해 관리할 가치가 있다.

【보물 지정예고】

□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靑磁 獅子形蓋 香爐)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靑磁 獅子形蓋 香爐)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소재지
 - 청자①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대교길 94-3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태안해양유물전시관
 - 청자② : 전라남도 목포시 남농로 13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수 량 : 2건 4점(각각 뚜껑 1점과 향로 1점으로 구성)
- 규 격
 - 청자① : 뚜껑 높이 13.9cm, 입지름 11cm, 동체 높이 10.1cm, 입지름 9.4cm
 - 청자② : 뚜껑 높이 14.5cm, 입지름 10.8cm, 동체 높이 9cm, 입지름 9cm
- 재 질 : 청자
- 조성연대 : 고려 12세기 전반
- 사 유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는 사자형상을 한 뚜껑과 네 굽이 달린 받침으로 구성된 고려시대 향로로서, 각각 2점씩 한 세트를 이루며 모두 4점이다. 이 유물들은 2007~2008년 태안 대섬 앞바다에서 발견된 ‘태안선’에서 출수(出水)되었다. 태안선은 같이 인양된 ‘탐진(耽津)’, ‘최대경(崔大卿)’과 같은 목간을 통해 12세기 전반 강진에서 제작한 청자를 신고 개경으로 가던 중 침몰한 선박이다. 이 선박에서는 약 25,000여점의 청자 및 여러 유물들이 출수되었으며, 지정 예고된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 역시 그 중 일부이다.

이 청자향로는 원형의 동체에 사자형 장식을 단 뚜껑이 세트를 이루고 있다. 향로뚜껑 위에 올려져 있는 사자는 앞다리를 세우고 위를 향해 치켜세워진 꼬리가 특징이다. 목에는 방울이 달려 있으며,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는 보주(寶珠)를 끼고 있다. 전체적으로 몸통에 비해 사자의 얼굴이 큰 편이며 양옆으로 활짝 벌린 입, 이빨, 혀바닥 등이 세밀하게 표현되었고, 뒷면은 갈기가 그려져 투박하지만 사자의 형상을 모두 갖추고 있다. 다소 파격적이고 거칠게 표현된 사자의 형상은 고려청자에서 볼 수 없는 이례적인 모습이며, 고려인들의 또 다른 미적 취향을 보여주는 희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몸통 일부가 정제되지 못했으나, 이는 상형청자의 제작방법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자, 1124년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설명된 유물로서 당시 고려청자가 중국 청자와의 대외교류를 통해 고유성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는 제작사례가 많지 않는 희귀한 상형청자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발견 시기와 지점이 명확하고 투박한 표현으로 해학적인 조형미를 보여주는 매우 독특한 유물이다. 고려시대 청자 제작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 서울 조계사 목조여래좌상(서울 曹溪寺 木造如來坐像)

- 지정현황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26호(2000.7.15.)
- 명 칭 : 서울 조계사 목조여래좌상(서울 曹溪寺 木造如來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조계사
- 수 량 : 1구
- 규 격 : 상높이 100.6cm, 무릎 폭 78.5cm
- 재 질 : 목조
- 조성연대 : 조선 15세기
- 사 유

‘서울 조계사 목조여래좌상’은 조선 15세기에 제작된 작품으로, 전라남도 영암 도갑사(道岬寺)에 봉안되었으나, 1938년 6월 조선불교 총본산(總本山) 건립에 맞춰 총본산(당시 太古寺, 지금의 조계사)의 주존불로 봉안하기 위해 이안된 상징적인 불상이다. 이 불상은 일제강점기 왜색불교를 배척하고 조선불교의 자주성과 정통성 확보를 위해 건립된 조계종 총본산의 주불(主佛)로 봉안된 것으로, 조선불교의 전통을 회복하고자 했던 당시 불교계의 염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한국불교사 및 불교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정확한 제작 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양식적으로 명대(明代) 영락(永樂)~선덕연간(宣德年刊)에 제작된 티베트 불상의 국제적 양식을 반영하고 있고, 1450년 ‘통도사 은제도금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을 비롯해 1451년에 제작된 ‘금동여래좌상’, 그리고 사명대사가 발원한 ‘포항 대성사 금동여래좌상’, 1458년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466년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등과 유사한 양식을 공유하고 있어 조선 15세기 작품으로 보고 있다.

생각에 잠긴 듯한 고요한 표정, 편단우견(偏袒右肩)의 착의형식, 안정된 비례감을 지닌 신체, 탄력적인 양감, 생동감 있게 연출된 세련된 옷 주름의 표현 등이 조선 전기 대표작 국보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과 비교될 정도로 높은 수준과 조형적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 유례가 드문 15세기 불상 중 조형성·예술성이 돋보이기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

□ 청구영언(靑丘永言)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청구영언(靑丘永言)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한글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 수 량 : 1책(70장, 표지제외)
- 규 격 : 전체 26.5×17.5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조선 후기

○ 사 유

‘청구영언’은 조선 후기까지 구비전승되던 총 580수의 노랫말을 수록한 우리나라 최초의 가집(歌集)이다. 청구(靑丘)는 우리나라, 영언(永言)은 노래를 뜻하는 말로서, 가집은 가곡(歌曲)이라는 우리의 전통 성악곡으로 불리던 시조를 모아 놓은 노랫말(가사) 자료집이다.

‘청구영언’은 조선 후기 시인 김천택(金天澤)이 쓰고 편찬한 책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그의 친필(親筆)인지는 비교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10년 넘게 노랫말을 수집한 김천택의 노력이 담긴 자료라는 점, 당시까지 전해 내려온 가곡을 작가의 신분이나 지위보다 노랫말의 가치를 우선해 수집하고 완성한 현전 최초(最古)의 가곡집이라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당대인들이 선호한 곡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틀을 짜고, 작가가 분명한 작품은 작가별로, 작자미상의 작품은 주제별로 분류한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었으며, 작가는 신분에 따라 구분해 시대순으로 수록함으로써 노랫말 전승의 역사까지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청구영언’의 체제는 이후 가곡집 편찬의 전범(典範)으로 널리 활용되어 200여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편찬되었을 정도로 후대에 끼친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

‘청구영언’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집이자 2010년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가곡’의 토대가 된 자료로서, 내용의 중요성 뿐 아니라 조선 후기까지 민간에서 사용된 언어와 유려한 한글서예풍 등 국어국문학사 및 음악사, 한글서예사, 무형유산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지대하므로, 보물로 지정해 가치를 더욱 알릴 필요가 있다.

□ 달마대사관심론(達磨大師觀心論)

- 지정현황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60호(2014.3.20.)
- 명 칭 : 달마대사관심론(達磨大師觀心論)
- 소유자(관리자) : 백천사
-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길 326-2, 백천사
- 수 량 : 1책
- 규 격 : 26.5×16.2cm
- 재 질 : 저지(楮紙)
- 형 식 : 선장(線裝)
- 판 종 : 목판본
- 조성연대 : 1335년(충숙왕 복위 4) 판각, 조선 초기 인출
- 사 유

‘달마대사관심론’은 중국 선종(禪宗)의 시초인 달마(達磨, ?~528)가 설한 심론(心論)을 정리한 불경으로서 편찬자는 미상이다. 지정예고 대상은 1335년(고려 충숙왕 복위 4)에 경주 계림부(鷄林府)에서 개판된 목판에서 후쇄(後刷)된 불분권(不分卷) 1책(16장)의 목판본이다. 이 책은 현재 전하는 동일 자료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서 판본으로, 권말에 책의 조판 발문과 함께 ‘지통 삼년 을해(元統三年乙亥)’의 간행기, 판각에 참여한 각수(刻手) 및 경주부의 인

물 등이 기록되어 있어 간행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자료로서도 가치가 높다.

또한 고려 판본의 특징을 밝혀주는 결획(缺劃)과 피휘(避諱) 등 다양한 현상과 함께 인출 시기의 보각(補刻), 매목(埋木) 현상도 함께 보여주고 있어 고려 말~조선 초의 목판인쇄문화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이와 동일한 판본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이상의 사유로 사천 백천사 소장 ‘달마대사관심론’은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 춘추경좌씨전구해 권1~9, 20~29, 40~70

(春秋經左氏傳句解 卷一~九, 二十~二十九, 四十~七十)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춘추경좌씨전구해 권1~9, 20~29, 40~70
(春秋經左氏傳句解 卷一~九, 二十~二十九, 四十~七十)
- 소유자(관리자) : 성균관대학교(성균관대학교 존경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 수 량 : 50권 5책
- 규 격 : 전체 23.5×15.5cm(半郭17.1×12.3cm)
- 재 질 : 저지(楮紙)
- 형 식 : 선장(線裝)
- 판 종 : 목판본
- 조성연대 : 1431년(세종 13) 판각, 인출
- 사 유

『춘추경좌씨전구해』는 춘추시대 역사서인 『춘추(春秋)』의 주석서로 임효수(林堯叟)의 음주본(音註本)이다. 발문과 간기를 통해 1431년(세종 13) 경상도 청도에서 원판본을 번각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지금까지 완질이 확인되지 않았고 전래본도 드문 고간본(古刊本)이다.

이 판본은 간행과정과 참여 인물이 자세하게 남아있고, 중국 간행의 표제면을 수용하여 양국 간 서적 간행의 연계성을 보여준다. 같은 서적의 판본으로 완질본이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 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을 비롯해 국내 기타 공·사립 도서관에는 각각 2책 내외의 적은 수량만 소장되어 있다.

반면, 지정예고 대상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은 50권 5책으로 현존 수량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인쇄 및 보존상태 역시 양호해 서지학적 가치가 높으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

【지정 예고 사진】

○ 국보 추가 지정예고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4>



<백지금니 묘법연화경 권5-변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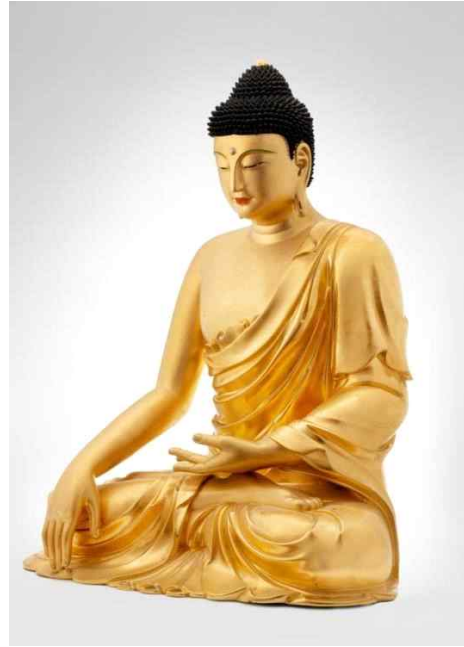
○ 보물 지정예고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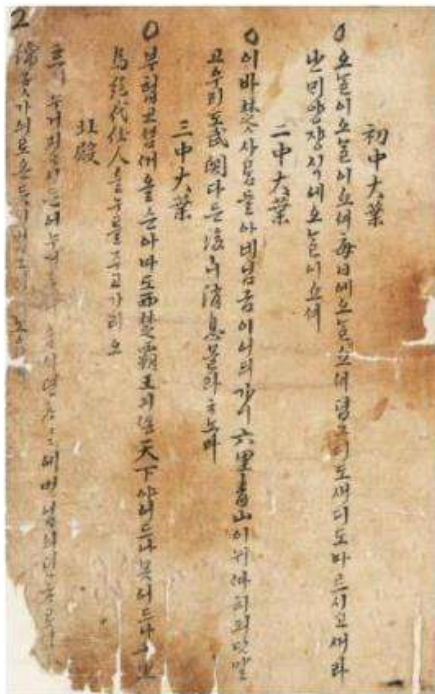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②



<서울 조계사 목조여래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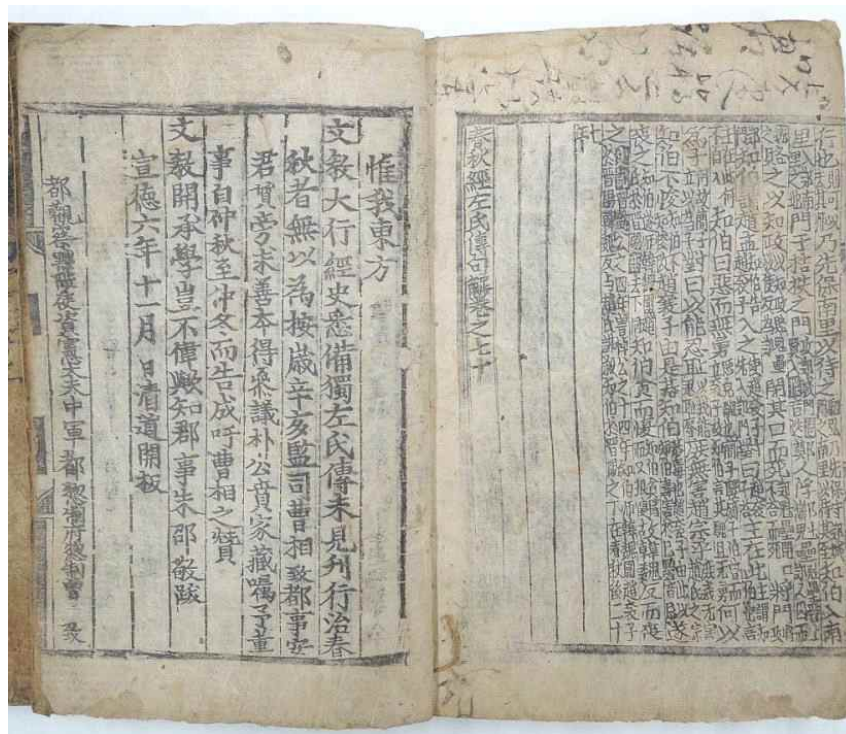
원: 정면/ 오: 측면



<청구영언>



<달마대사관심론>



<춘추경좌씨전구해 권1~9, 20~29, 40~70>